# 음악으로 전하는 따뜻한 '생명나눔' 향기

## 생명나눔실천본부, 9월 24일 불암사서 산사음악회 개최

아름드리 나무숲과 향기로운 풀, 흐르는 계곡물, 가을을 알리며 지저귀는 산새들까지. 온갖 생명이 깃든 불암산 자락에 사람들이 도란도란 모여들고 음악이 울려 퍼지자 산사가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쳤다.

9월 24일 남양주 불암사와 (사)생명나눔실천본부가 공동 주최한 '2016 생명나눔 산사음악회'엔 2200여명 사부대중이 모여 가을 초입의 낭만에 젖어들었다. 2007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8회를 맞은 '생명나눔 산사음악회'는 사회에 생명나눔 의식을 확산시키고,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활성화시키고자 기획됐다.

가수 성빈과 동국대 무용대학원 학생들의 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는 △일면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생명나눔 공헌자 표창 △명예의 전달 헌정식 △동국대 참사랑봉사단 장학금 수여 △홍보대사 위촉식 등으로 이어졌다.

재단법인 일면장학회는 배움에 뜻이 있는 학인 스님 및 청소년들의 학업을 지원하고자 구성된 장학단체다. 이날 일면장학회는 봉선사 능엄학림 소속 법종 스님 외 9명 학인 스님, 불자 청소년 7명 총 16명에게 장학금 각 100만원을 수여했다.

박정호(의정부 광동고 · 3년) 군은 "수험이 얼마 남지 않아 긴장된 마음을 달래고자 매일 아침 학교 법당서 30분 씩 예불을 드리고 있다. 그 공덕으로 장학금도 받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법당에 나가며 남은 기간 동안 학업에 정진할 것"이라 소감을 말했다.

아울러 생명나눔실천본부 새 홍보대사로 가수 양하영 씨가 위촉됐다. 양 씨는 "올해 동국대 일산병원 '한다솜 희망음악회'서 공연한 것을 계기로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인연을 맺었다"며 "불자로서 곳곳에 음악공양을 올리며, 생명나눔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본격적인 음악회는 BBS불교방송 FM '유쾌한 가요쇼' 진행자 고한우 · 세리 씨가 포문을 열었다. 맛깔 나는 진행으로 분위기를 단숨에 띄운 고 씨는 "선선한 날씨 속 천년고찰서 산사음악회 진행

**2200여명 대중 경내 가득 메워**
**2007년 시작돼 올해로 8회째**
**청소년 등 16명 일면장학금 수여**
**장기기증 희망등록 동참 '활발'**
**"생명나눔 확산 계기 될 것"**

을 맡아 영광"이라며 "앞으로 50년, 100년을 이어가는 산사음악회로 사회에 기여하는 행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기원했다.

경내를 가득 메운 대중들은 진행에 맞춰 박수를 치거나 파안대소했다. 축제가 어색한 듯 쭈뼛대던 71사단 장병들도 어느새 긴장을 풀고 음악회를 즐겼다.

71사단 장만수 상병(23)은 "부대원들과 함께 산사음악회를 방문하니 즐겁다"며 "공연 뿐 아니라 장기기증희망등록 캠페인도 진행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장기기증희망등록에 동참할 의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2016 생명나눔 산사음악회'서 가수 김용임 씨가 열창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기기증희망등록 캠페인과 함께 바자회 등이 진행됐다. 산사음악회가 장기기증희망등록 홍보에 높은 효과를 보인 것은 이미 정평 난 상황. 이날도 1시간 만에 20명 이상이 신청하며 다시 한 번 산사음악회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했다.

이관자(69) 씨는 "불암사 산사음악회에 매년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며 "나뿐 아니라 친구들도 모두 이곳서 장기기증 희망신청을 했다. 이런 자리 덕분에 음악도 즐기고 뜻 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웃어보였다.

한편 이날 자리엔 조계종 종회의원 호산 · 환풍 스님, 회룡사 주지 성타 스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낙영 경기도의원, 태석기 동국대의료원장, 박희도 前 육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한정 의원은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불암사를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산사서 자비와 사랑을 마음껏 담아가길 바란다"며 "생명나눔 의식 확산에 앞장서는 일면 스님의 큰 마음을 배워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 장기기증 운동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서 펼쳐지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태석기 원장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여러 캠페인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장기기증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격려했다.

이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이자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은 "올해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산사음악회를 진행하며 생명나눔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아 뿌듯하다.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모여 훗날 더 따뜻한 사회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기뻐했다.

박아름 기자 · 이승희 수습기자

# 스리랑카 불교의 등불, 냐나난다 초청법회

## 10월 14일 참불선원서… "남방불교 이해 높일 것"

'스리랑카 불교의 등불'로 평가받는 냐나난다 테로 존자〈사진〉가 사상 최초로 방한, 서울 대치동 참불선원서 특별법회를 갖는다.

참불선원(선원장 각산)은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냐나난다 존자 특별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자리는 한국불자들이 남방 상좌부 불교의 본산지 스리랑카의 불교를 이해하고, 새 수행법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냐나난다 존자는 페타데니하 대학서 팔리어를 가르치는 교수였으나, 교수직을 버리고 아란냐 숲속으로 들어가 15년 이상 수행에 전념했다. 이후 1999년 마하매우나워 선원을 설립, 17년간 꾸준히 새 불교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수행자다. 현재 마하매우나워 선원은 스리랑카 내 60개 분원과 해외 30개 분원이 설립될 만큼 성장했다.



참불선원 측은 "스리랑카는 삶의 의의와 생활원리, 공덕관념에 근거한 선행을 올바로 실천하는 남방 상좌부 불교의 종주국"이라며 "이번 법회는 스리랑카 초기불교를 통해 기존에 알지 못했던 남방불교의 새로운 수행방법을 경험하고, 부처님의 깊은 깨달음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은 "냐나난다 테로 존자 초청법회는 부처님 당시 고귀한 원형불교의 설법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법석이 될 것"이라며 "이날 자리가 한국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국제적 상호교류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마크 테토, 9회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

## "세대 · 국경 초월 영화제될 것"

JTBC '비정상회담' 출연자 마크 테토가 제9회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서울노인영화제 측은 "마크 테토는 노인문화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 홍보대사로 가장 적합하다. 제9회 서울노인영화제는 그와 함께 세대와 국경을 뛰어넘는 영화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크 테토는 사회공헌재단 '코리아 레거시 커미티'서 활동하며 서울노인복지센터 후원을 시작, 노인문화와 특별한 만남을 맺었다. 마크 테토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이 노래방 · 요리교실 · 라디오방송국 ·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생활에 참여하는 모습이 매우


제9회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 마크 테토.

인상적이었다"며 "영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감정, 시선, 생각들을 느낄 수 있는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 영광스럽다. 앞으로도 한국 뿐 아니라 해외에도 서울노인영화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9회 서울노인영화제는10월 20~22일 서울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서 개최된다. 박아름 기자

# 산청 보림선원, 추계 철야 정진

산청 보림선원(선원장 전근홍)은 10월 21~23일 추계 철야정진을 실시한다. 첫날 오후 9시 예불을 시작으로 선원장의 새말귀(신화두)에 대한 소개, 소참법문이 진행된다. 이후 백봉거사의 육성 CD를 바탕으로 공부하고 좌선과 포행을 병행한다. 총 9시간의 설법과 15시간의 좌선 및 포행 등을 하며 눕지도, 자지도 않은 채 장좌불와로 새말귀를 참구한다.

전근홍 원장은 "자연에 묻혀 참선, 포행 정진을 하면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백봉거사님의 생전 육성 설법이 와전과 곡해를 예방하고, 후학들의 공부 분위기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055)972-9555 윤호섭 기자

# 22년 만에 문 연 아주대병원 법당

## 9월 29일 무위선원 주지 보경 스님 원력으로

1994년 수원 아주대병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불교법당이 문을 열었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말사 무위선원(주지 보경)은 9월 29일 수원 아주대병원 본관 지하 2층서 법당 개원식을 봉행했다.

아주대병원에 불교법당이 들어선 것은 개원 이래 처음이다. 그간 개신교와 가톨릭 환우들을 위한 공간은 유지됐으나, 부처님 가르침 되새기며 치유를 기원할 공간이 없어 많은 불자들이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무위선원 주지 보경 스님은 법당을 설립하고자 병원 관계자를 비롯해 다양한 이들을 만나며 법당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곳곳에서 도움을 받아 법당을 마련할 수 있었다.



아주대병원 지하에 새롭게 마련된 불교법당.

보경 스님은 "지인 병문안을 하러 병원에 왔다가 법당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원력을 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법당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병원불자들을 위한 귀의처로서 법향을 널리 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개원식에는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탁승제 병원장 등이 참석, 불자환우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생활 할 수 있길 기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특별한 템플스테이

## 국제선센터, 10월 6~7일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10월 6~7일 경내서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한 템플스테이 '부모님 손잡고 1박2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정서순화를 돕고, 한때의 탈선을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템플스테이에는 '울화통 캠프'로 잘 알려진 보관 스님이 지도법사로 참여한다. 스님은 △사찰 예절교육 △내 마음 다스리기 △알아차림 명상 △스님과의 차 한 잔 등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계획이다.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 스님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받은 아픔과 좌절을 딛고, 미래를 향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길 바란다"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활안 · 호암스님의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강의

경덕전등록은 송나라의 도원(道源)이 1006년에 저술했으며, 총 30권에 이른다.
과거칠불(過去七佛)로부터 역대 선종의 조사들, 오가(五家) 52세(世)에 이르기까지
법등(法燈)을 전한 법계(法系)를 차례로 기록한 책이다.

■ 강 사 : 활안스님(금강선원 총재)
호암스님(전 불교통신대학원장 / 내원사 주지)
■ 일 시 : 2016년 10월 17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 동참비 : 월 50,000원
■ 장 소 :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전화 02-969-2410 / 969-4981)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43가길 6(청량리동)

※ 통신반 모집 : 지방에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강의를 녹음하여 CD로 제작하여 보내드립니다.


